

임가영 작가를 소개합니다.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신진작가 지원을 위한 PT & Critic 프로그램에 아홉 번째로 선정된 임가영 작가는 이전에 학교에서 실행하였던 <워크워크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의 작업을 선보인다. 실재 페인트공인 아버지를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초대하여 함께 대화를 하며 공간에 칠해질 색을 이야기 하고 어느 만큼 칠할 것인지, 어디에 칠할 것인지 어느 주문자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진행한다. 작가와 아버지라는 부녀 관계에 놓인 상황은 철저히 업무로서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아버지를 전시 공간으로 초대하여 크기를 가능하도록 하고 색을 정하게 하는 과정은 단순 노동으로서의 일에 창의성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작가의 아버지를 왜 이 색을 골라야 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밀어 넣게 된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과정과 실제 벽에 칠을 하는 모습은 모두 영상에 기록되었고 이는 전시장 벽면에 상영된다. 작가는 생계를 위한 웹툰에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색을 입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전시장 한 칸에는 작가의 실제 생계를 위한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노동의 현장의 액면 그대로의 시스템 또한 전시장으로 위치시킨다.

임가영 작가가 소개한 작업은 기록과 행위, 그리고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설치 공간을 드러내며 이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노동과 예술에 대한 질문인데 이는 특정한 작업이 행해지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달리 형성하게 된다. 관객은 일상의 대화와 감정이 벽면에 '전시'되고, 순수한 생계 노동이 '퍼포먼스'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예술과 노동의 경계를 분명히 해 왔던 모더니즘적 사고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 속에서는 노동의 행위와 예술적 행위가 꽤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들의 차별적 위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지점 또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노동의 현장에서 그러했던 일반적인 주문자와 행위자의 관계는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변모되어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과 대화 속에서 노동의 행위를 구분짓는 수 많은 문장들이 드러난다. 처음 학교 작업실에서 시도했던 프로젝트에서는 아버지에게 색을 지정해 줌으로써 예술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해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선상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작업에서는 직접 색을 고르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버지와 대화에서는 예술은 예술일 뿐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노동 행위는 갤러리에 들어와서도 그 위치가 다르지는 않다. 이처럼 아버지에게는 칠하는 순간까지 예술에 대한 문맥은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왜 이 색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지 않았다. 그저 흰 바탕색의 글씨들이 잘 보이는 정도의 배색으로서 협의했다.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해보고자 하였고 학교에서의 작업에서와는 달리 아버지로부터 어떤 미묘한 변화를 읽고 있다. 그것은 예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경험적 태도로 해석되었는데 이것 또한 일방적 해석일지도 모르겠다. 그저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대견함 정도에서 그치는 태도일 수도. 이렇게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상징한 이 협업은 이 두 사람 사이의 틈을 조금 좁혀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평행선을 계속 유지 할지도 모른다. 예술계 속에서 치열하게 의미를 부여해보는 이들은 실제로 얼마만큼 이를 인정받거나 이해받고 있을지 가능하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